# 한때 눈부신 번영을 누렸지만 지금은 버려진 곳 '폐허'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

트래비스 엘버러 지음, 성소희 옮김

베네치아에서 8km 떨어진 작은 섬이 있다. 포벨리아(Poveglia)라고 불리는 이 섬에 대해 어떤 이들은 "지구상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7만㎡가 조금 넘는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오싹하면서도 기괴한 역사가 드리워져 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1340년대, 이후 흑사병이 재확산된 1600년대 포벨리아는 죽음의 땅이었다. 베네치아의 흑사병 환자가 버려지던 곳이었다. 수백 년 동안 검역과 격리의 대명사였다. "베네치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먼저 포벨리아에 40일 동안 머물러야 했다. 예수가 광야에서 금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이겨낸 기간과 똑같은 이 40일은 이탈리아어로 '콰란티네'로 불렸다." 이 낱말은 후일 전염병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말로 일반화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격리와 검역이 딴 세상 이야기로 치부됐다. 동물에게나 취해지는 또는 예방접종이나 항생제가 발명되기 이전에 있었던 조치쯤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늘 반복되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인간에 대한 대량 격리와 유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잊고 내버려 둔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더러 서사적 관점에서 폐허는 아름답기도 하고 섬짓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버려진 장소를 모티브로 흑역사의 랜드마크가 된 곳을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는 버려진 장소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를 주목한다. 저자는 '사라져가는 장소들의 지도'를 쓴 트래비스 엘버러로 그는 '영국 최고의 대중문화역사가 중 한명'으로 꼽힐 만큼 역사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풀어낸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인 폐허 4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파국을 피하지 못한 장소들과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르웨이 피라미덴은 석탄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1920년 스웨덴에서 독립한 노르웨이는 스피츠베르겐조약에 따라 통치권을 차지했다.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얻었지만 러시아만 권한을 행사했다. 소련 국영기업이 2차대전 후 석탄 채굴을 시작했고 이후 이곳은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도 견뎠지만 석탄 가격 급락과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 영향으로 1998년 피라미덴 광산은 문을 닫기에 이른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부식과 좀도둑, 갈매기, 북극여우, 이동하는 빙하, 해빙수가 마을 일부를 휩쓸었다"면서도 "소비에트의 기술자들이 경로를 변경한 빙하류와 강물이 제멋대로 흐르면서 인간이 오만하게 바꾸어놓은 자연 지형을 원상태로 돌려놓았다"고 말한다.

이스탄불에는 높이 21m, 길이 1025m나 되는 브위카다 보육원이라는 목조건물이 있다. 유라시에서 건설된 순수 목조건물로는 가장 크다. 오스만 건축가 알렉상드르 발로리가 1898년 호텔과 카지노 건물로 지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립됐지만 영업 허가는 받지 못했다고 전해온다.

도박 금지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후 자선가에게 팔려 보육원 등으로 쓰게 된다. 그 사이 세계대전과 혁명 등 격변으로 6000명의 고아가 거쳐간 이곳은 1964년 문을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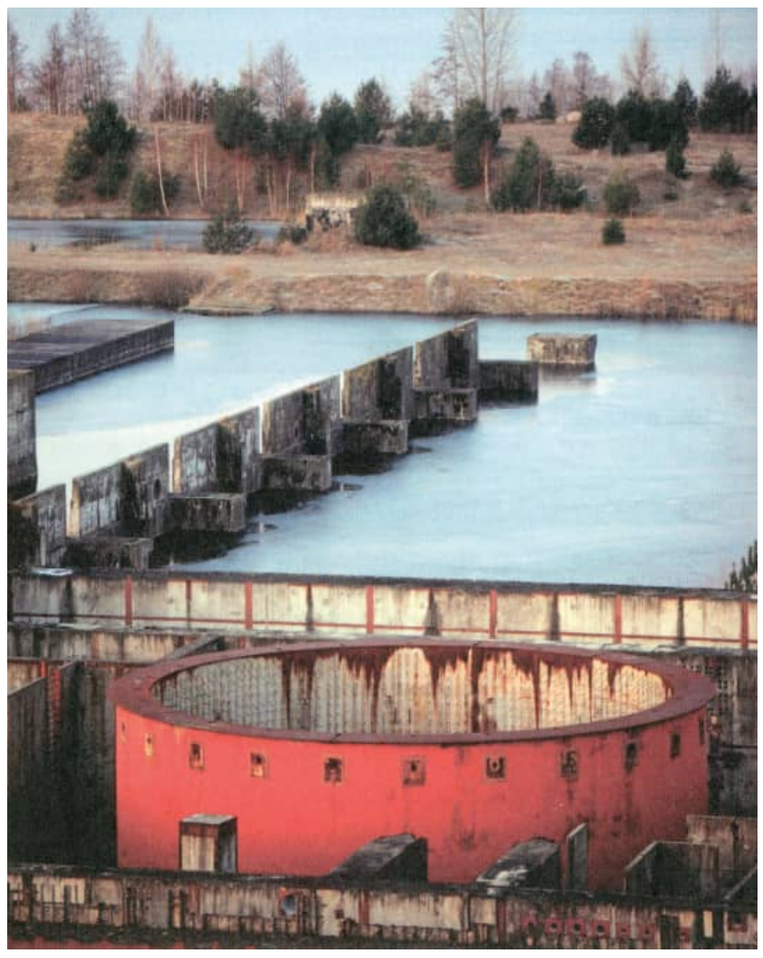
덴마크의 루비에르크누드 등대는 자연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설에 크누트 대왕은 권력을 과신해 왕좌를 바닷가로 옮긴 뒤 바다를 향해 "멈추라"고 명령했다. 결과는 뻔했다. 마찬가지로 루비에르크누드 등대 또한 바다가 해안선을 갉아먹으면서 쌓인 모래로 결국 1968년 폐쇄됐다.

이밖에 체르노빌 참사 여파로 폐쇄된 폴란드 자르노비에츠 원자력발전소, 지금은 해골 같은 뼈대만 남은 영국의 웨스트피어 부두 등은 한때의 영화는 사라지고 폐허로 남아 있다.

저자는 "잊혀서 완전히 사라진 대상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치는 희망을 모두 포기해야 할 근거가 아니라 그 반대다. 버려진 장소는 다가올 세상을, 잔해에서 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더 오래 더 열심히 생각해보라고 격려한다"고 말한다.

〈한겨레출판·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르노비에츠 원자력발전소는 완공되지 못했고, 1990년에 버려졌다. 〈한겨레출판〉

## 애덤 스미스

니콜라스 필립슨 지음

대덤 스미스를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일컫는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를 수식하는 말은 많지만 '경제학의 아버지', '불멸의 경제학자'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이다.

올해는 애덤 스미스가 태어난 지 300주년이 되는 해다. 애덤 스미스를 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개념과 기본 핵심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애든버러대학교 역사학과 명예 연구원이자 전기 작가인 니콜라스 필립슨이 쓴 '애덤 스미스'는 생애와 사상을 다룬 평전이다. 생전의 애덤 스미스는 자본시장의 차가움보다 인간의 따뜻한 도덕심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욱 비범했던 애덤 스미스의 선견지명을 일깨우는 작품"이라 평했으며 타임스는 "주목할 만한, 그리고 기막힌 작품. 필립슨보다 스미스의 '깨달음이 가득한 삶'을 더욱 뛰어나게 묘사할 수 있는 작가는 없다"고 말했다.

책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애덤 스미스의 삶의 이력을 따라가며 그의 사상과 다양한 면을 풀어낸다. 특히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선 '국부론'과 아울러 '도덕감정론'의 배경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부론'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폐해를 이야기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자유시장체제를 언급한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상정하는 자유시장체제는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쟁,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다각도의 조사를 토대로 인간 애덤 스미스를 소환한다.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노트, 그가 친구들과 나눈 편지 등의 실마리를 엮어 시장경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소개한다.

〈한국경제신문·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해제를 꿈꾸며

원상 스님 지음

산방 에세이 '토굴가'를 펴냈던 원상 스님이 수상집 '해제를 꿈꾸며'를 펴냈다. 저자는 지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마곡사를 비롯해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법주사, 대승사 외 33안거를 성만했다.

이번 책에는 불교와 스님, 경전에 대한 단상들이 담겨 있다. 제목 '해제를 꿈꾸며'는 스님들이 수행기간을 마친다는 뜻 외에도 그 이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해제라는 낱말은 석 달, 한 철의 졸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 자신의 에고에서 벗어나는 우화(羽化)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미가 칠 년 이상을 땅속에서 인고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나 수행자가 각고의 시간과 열정으로 벼락 치는 깨달음이 있은 후에 갖는 인욕의 선물 같은 것이 참 해제입니다. 나의 땀으로 공을 들여 맞이한 해제는 설렘과 보람이 섞여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모르는 이가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본다. 인생에 있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기 자신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하는 이유다.

책에는 스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사유와 가슴 따뜻한 문사로서 지닌 정서가 담겨 있다. 아울러 그는 지행합일을 매개로 단호함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한편 삼천사 회주 성운스님은 추천사에서 "수상집은 연꽃 마을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전파하고자 애쓴 결과물"이라며 "한낱 미물 중생일지언정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스님의 지론(持論)과 평소 행동 철학을 반영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평한다.

〈시간여행·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

김한나 지음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사건.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범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법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대인·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상식을 다룬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이 나왔다. 부동산과 임대차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자신의 영업장을 빌리는 등 임대인·임차인으로서 서로 계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상당하다. 이럴때는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책임소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임대차법을 잘 알고 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책은 임대인편, 임차인편으로 각각 나눠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룬다. 임대차보호법 전문과 기본 서류 양식도 수록돼 있다.

〈이야기나무·각 권 1만4800원, 1만3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